



철감선사부도의지붕을수놓는목조건물의형태를그대로 옮겨왔으며정교한 조각이 일품이다.

# 하늘사람의 솜씨인가 정교함과 해학 통해 걸림없음 희구

## 30 부도의 '명품' 긴직한 쌍둥이

봄비 내리는 날, 화순 쌍봉사 대웅전 앞에 섭니다. 엄격한 몸매를 자랑하는 3층 목탑은 다른 절에서 느끼기 힘든 감동을 줍니다. 흰칠한 장부처럼 서서 만중생의 귀의를 받아들이는 그 위엄이 봄비 속에서 더욱 웅장함을 드러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가섭과 아난존자에게 삼배를 올리고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오릅니다.

쌍봉사 철감도유(鐵鑿道尤 798-868)선사 부도(국보 제57호)를 만나러 가는 길은 고운 흙길입니다. 오른쪽은 무성한 대숲이고 왼쪽에서는 제법 나이가 들어 보이는 차나무가 표백된 새순을 내밀고 있습니다. 차와 대나무를 좌우로 거느린 길을 따라 100m쯤 오른 곳에 철감 선사의 부도와 탑비가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도를 꼽으라면 누구나 이 철감 선사의 부도를 꼽습니다. 비록 도굴의 피해를 입어 상륜부가 없고 옥개석의 일부와 하대석의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그 안정감 있는 매무새와 화려한 조각은 보는 사람을 환희롭게 합니다. 석조부도를 감상하는 눈 맛의 극치를 느낄 수 있는 부도라고 평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철감 선사의 부도는 지리산 연곡사 동부도와 함께 최고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부도의 아랫부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면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대석은 팔각의 지대석위에 두 단으로 된 팔각형의 껍대를 마련하고 올랐습니다. 말하자면 부도를 받치는 지지대를 매우 안정감 있게 설치한 것입니다. 각이 없이 둥글게 조성된 하대석을 설치하며 지표와의 거리를 리듬감 있게 배려한 것이 탁월하게 느껴집니다. 뭉개뭉개 피어오르는 구름 사이로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회통하며 꿈틀거리는데, 그 조각 솜씨가 혀를 내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대석의 윗 단은 완만하게 팔각을 취하고 있는데 안상 속에는 여러 가지 몸짓을 가진 8마리의 사자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사자들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거나 개처럼 엎드려 있기도 한데, 그 중 한 마리는 자신의 뒷다리를 들고 있어 한 번 더 살펴볼게 됩니다. 조각한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색적인 형상을 빚었을까요?

“철감 선사가 입적할 당시는 다소 혼란스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큰 율령으로 법을 펴던 철감 선사의 부도에 이 같은 해학적인 형상이 묘사된 것은 당대 사람들이 회귀하는 태평성대 혹은 깨달은 사람의 걸림 없는 여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쌍봉사 건너편 이불재(伊佛齋)에 살고 있는 소설가 정찬주씨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철감 선사는 장보고 선단과 막역한 교류가 있었으므로 이 부도 역시 그와 연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중앙정부는 선사의 입적에 대해 시호를 내리는 등 행정적인 절차는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기술이 가는 국운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와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한 쌍봉사에 이토록 아름다운 부도를 조성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

래서 이 지역의 토호 세력과 장보고 선단의 막강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작의 탄생이 가능했을 것이라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 것입니다.

팔각의 중대석은 하대석 윗면에 흠을 파고 끼워 넣었습니다. 기둥에는 연잎을 조각하여 모서리가 주는 예리함을 무디게 처리하고 안상에는 다시 다양한 형상의 가릉빈가를 새겨 넣었습니다. 솜씨와 정성의 조화를 넘어선 깊은 곳에서 알비치는 무언의 메시지가 부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니 어느 것 하나 예사로 볼 수 없습니다.

연화대와 안상 속의 가릉빈가가 더욱 현란하게 형상화 된 상대석은 둥근 몸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대석의 원형에서 중대석의 팔각을 거쳐 다시 원형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 짧은 거리에서의 변화로도 무언가 큰 설법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장의 연꽃잎은 중간에 다시 화려한 꽃무늬가 치장되어 있으니 이를 두고 금상첨화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눈은 상대석의 윗 단에 한참 머물게 됩니다. 안상 속에 새겨진 가릉빈가들의 형상은 기묘하고 그 자체입니다. 한 곳에는 살풀이춤을 추는 모습이고 또 한 곳에서는 장구를 치는 모습입니다. 장구의 경우 <악학궤범>에 “고려시대 송나라로부터 들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신라시대에 우리나라의 악기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이 부도는 입증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시대의 범종에서도 장구가 등장하니 <악학궤범>의 기사에 다소 오류가 있거나 모양은 비슷하나 다른 악기라는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

팔각의 몸통은 배흘림기둥을 세웠고 기둥 윗부분은 목조건축의 짜임 수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각원당형의 석조부도는 목조건축의 구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앞뒤로 문비를 둔 탑신석에는 웃것하나까지 세심하게 표현된 사천왕상과 비천상이 면마다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철감 선사의 사리는 그 안쪽 어딘가에 있었을 겁니다. 사리를 흠치려는 사람이 이 부분을 노리



국내 부도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철감선사 부도.

는 사람들이 내려와 밤사이에 덩그러니 조성해 두고 올려갔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석공에게 자신도 모르게 솜씨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었을 것일 겁니다. 철감 선사 부도 앞에서 서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믿고 싶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듯한 자세를 취한 귀부.

는 불길 같은 세 개의 귀꽃이 성성한 기상의 선사를 표현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귀꽃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 철감선사 부도 균형미와 정교함 ‘국내 최고의 걸작’ 앞으로 나아갈 듯 오른발 든 귀부는 역동성 보여줘

고 탑을 쓰러뜨려 탑은 오래 흠어져 있었고 1957년에 다시 짜 맞추는 것이 지금의 모양입니다.

이제 시선은 상륜부를 잃어버린 옥개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연방 감탄사를 토하게 됩니다. 세월의 보습제 같은 이끼를 덮고 있는 지붕들의 낙수면을 따라 봄비가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빗물은 연잎이 정교하게 새겨진 수막새 끝단에서 영롱한 보석이 되는 듯합니다. 고개를 치켜들고 처마 밑을 보면, 연꽃과 부연 등 서까래들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여 목조건축의 축조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천상과 향로와 꽃무늬들이 정연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더듬으며 영원의 집으로 들어가는 묘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부도는 사람의 솜씨가 아닐 것만 같습니다. 하

이제 눈을 돌려 부도탑비를 더듬습니다. 아깝게도 몸통을 잃어버린 채 귀부와 이수가 한 몸을 이루어 봄비에 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렇게 불안정한 몸으로 비를 맞고 눈에 묻혔을지 모르지만, 근저 어디를 파보면 몸통의 조각이라도 나올 것 같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등에는 선명한 귀갑문을 짙어지고 머리를 치켜 든 귀부는 금방이라도 바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듯합니다. 거북의 몸 쪽에서 오른 쪽 발은 위로 쳐들었고 왼발은 발톱으로 땅을 파듯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은 잠시 휴식을 거두고 앞으로 걸어 나갈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철감 선사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의 정신이 한 순간도 머물지 않고 앞을 향해 뻗어 나갔을 것입니다. 이수의 화려한 구름 문양과 그 속에서 여의주를 다루는 두 마리의 용, 그리고 타고

철감 선사는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사자산문의 개산조입니다. 그의 제자가 징효절중(澄曉折中)이며 그에 의해 사자산문이 흥성하게 됐습니다. 고려 후기의 문헌서 <선문조사예참의문(禪門祖師禮儀文)>에 사자산문의 개산조가 철감 도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철감 선사의 생애는 비문이 유실되어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지만 <조당집> 권17 ‘쌍봉화상’ 편에 대강이 드러나 있습니다. 쌍봉화상은 철감 선사가 말년에 얻은 호입니다.

철감 선사는 18세에 출가하여 황해도 귀신사에서 <화엄경>을 공부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남전보원(南泉普願) 선사를 참방해 인가를 받았습다. 잘 알다시피 남전보원은 마조도일의 제자이고 도일은 남악회양의 제자입니다. 다시 남악회양은 중국 선종의 우뚝한 봉우리 6조 혜능의 제자입니다. 철감선사는 혜능의 조계선맥을 정통으로 이었다는 얘기고 ‘꺾다거’로 유명한 조주와 같은 항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맥은 흥녕선원(興寧 법흥사)에 있는 징효절중 선사의 비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남전보원이 철감 선사에게 법을 전하며 “중국의 법이 신라로 간다”고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의 중국과 한국의 불교를 비교해 보면 그 탄식은 오늘에 더 유효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는설위원)

### 초기 선종의 가르침과 행법의 전모를 온전히 전해주는 책!

## 7권본 능가경 역주

### ‘선종의 뿌리’ 이자 ‘최상승선의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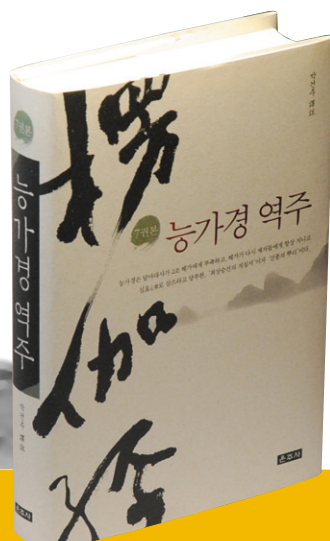
“이 『능가경』 4권을 나에게 부촉한다. 이 경은 여래심지心地의 요본이며, 모든 중생을 개시요일開示悟入하게 할 것이니라.”

—달마대사가 혜가에

“내가 보건대 중국에 오직 이 경이 있을 뿐이다. 인자仁者가 이에 의지하여 행한다면 스스로 증득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달마대사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고 난해하여 그동안 외면받아 온 『능가경』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역주!



박건주 역주 | 신국판양장 | 640쪽 | 값 27,000원

### 근현대 한국불교가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를 대중적 눈높이에 맞춰 풀어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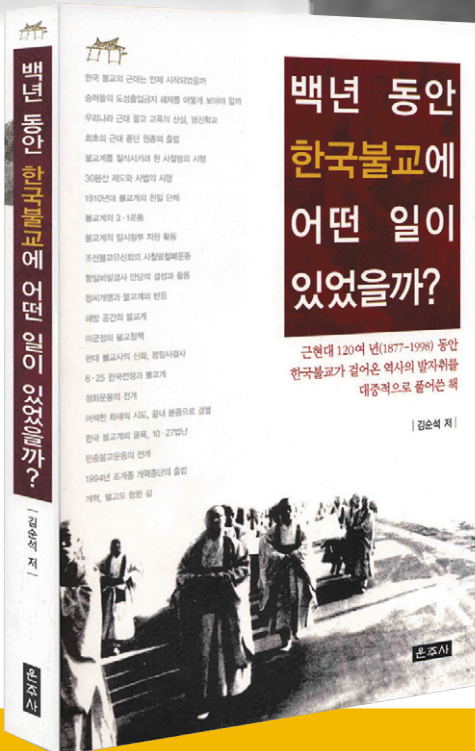
## 백년 동안 한국불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 근현대 한국불교사의 길라잡이

1870년대 개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정화, 그리고 1990년대 개혁까지, 120여 년 동안 우리 불교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가려내, 각각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불교사적 의미를 성찰한다.

근현대 한국불교를 관통하는 사건, 단체,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주는 역사적 교훈은 무엇인가?



김순서 저 | 신국판 | 368쪽 | 값 13,000원